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탐욕과 교만, 거짓은 인간의 적(敵)이다

오늘은 시사문제가 아닌 인간 보편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삶의 행위와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을 짚어보는 일이기도 하다.

탐욕, 욕심이 지나치면 안된다. 탐욕, 욕심은 사탄의 발판이다. 탐욕은 죄(罪)를 부르고 죄악을 낳는다. 죄악은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욕심이 지나쳐서 폐가망신(敗家亡身)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본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그 좁에서 증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 나오는 일이 많다.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그런데 그 위험한 탐욕은 다른 면에서는 본능의 일부이기도 하고, 생의 의욕이기도 하다. 좀 더 잘 살려는 욕망, 좀 더 잘 되려는 욕심, 좀 더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 기초하고 있다. 좀 더 자유롭고자 하는 본능,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없다면 인간사는 발전되기 어렵다. 그러한 본능을 기본적 권리, 기본권이라고 부르던, 인권이라고 부르던, 그러한 본능을 억제시키거나 없다면, 원시시대이거나 천

국이 될 것이다. 좀 더 잘 되고자 하는 선한 생의 의욕, 남에게 상처나 손해 주지 않는 정당한 욕망은 적극 장려하고 칭찬해야 할 인생 덕목이다.

그리고 탐욕과 욕심, 생의 의욕과 본능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과 정신 속에 들어 있다. 선도, 악도 우리 마음 안에 있고, 탐욕과 생의 본능도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선한 사람도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도 마음을 고쳐먹으면 선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유교 공자님은 중용(中庸)을, 불교 석가모니는 중도(中道)를, 예수와 서양 철학에서는 절제를 강조하고 있다.

중용이나 중도, 절제는 거리적인 중간 지점이나 개념상의 중간이 아니다. 때에 알맞은 적중(的中)이요, 시중(時中)이다. 때는 복잡한 환경을 총칭한다. 같은 방향을 때맞추어 할 때, 여름과 겨울에 난방 온도를 달리하는 것과 같다. 아궁이에 불태우는 장작개비 숫자를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이 중도요 중용이요 절제다. 여름에 겨울처럼 장작을 쬐 같이 많이 불태우는 것은 지나침(過)요, 겨울에 여름처럼 장작을 적게 태우는 것은 모자람(不及)이다. 과부족,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중용, 중도, 절제다.

인간은 차면 넘치게 마련이다. 찬다는 것은 교만(驕慢)이다. 제 잘난 멋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지만, 교만도 인간을 괴멸로 이끄는 중용한 안내자이다.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간사 차면 기우게 되어 있다. 좀 더 겸손했더라면, 좀 더 남의 말에 귀 기울였더라면, 좀 더 남에게 양보했더라면, 좀 더 남을 배려했더라면, 좀 더 널리 소통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한다.

교만에 빠지고 취해서 깨어날 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서 우쭐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하고 깜짝 놀란 경험도 갖고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도 있다. 또한 교만은 갈등과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공자는 하루에 세 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 하라고 일일삼성(一日三省)을 가르쳤다. 씩어 없어지지 않을 불후(不朽)의 명언이다.

거짓이 나쁘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잘 안다. 그러나 옛 성인들의 말씀처럼 '알거나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남에게 배울면 좋은 삶이 된다. 부지

런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누구나 잘 알고, 누구나 말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오랜 시간을 자신과 환경 등 많은 변수들을 조절하고 적응하면서 목표를 향한 자기의 노력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자기와의 싸움이다. 풍파(風波) 몰아치는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뗏단배를 노 저어 가는 절박한 항해(航海)다. 꽃 피고 새 우는 봄날 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폭풍이 불어 닥치기도 하는 예측불허의 바다가 우리 인생이다.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달콤하다. 누구나 거짓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 거짓도 탐욕이나 교만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 생의 의욕과 결양과 정직성과 함께 공존해 있다. 누구나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는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짓을 해 본 경험들이 있다. 사실과 다른 줄을 모르고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고 착오요 착각이요 무지(無知)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수습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곤욕과 궁지(窮地)에 몰려서 고통받게 된다. 거짓이 나중에는 탄로 나서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과 부(富)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탐욕과 교만, 거짓을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적절하고 선한 생의 의욕과 배려, 진실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하여 죽는 날까지 평생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완성이냐 완성은 어렵고 부족하다. 우리 인간은 '문제 많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그 대로 내던져진 역사적인 실존'인 불안정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름답고 슬픈 존재이다.

社說

혼인율 이렇게 저조해서야

지난해 국내 혼인율이 통계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 결혼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진 상황 등이 결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粗)혼인율은 작년에 전국 행정기관 신고 기준으로 5.0건을 기록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조 혼인율은 1970년에는 9.2건이었고 등락을 반복하다 1980년에 10.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2001년에 6.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7명에 미달했다.

조혼인율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7년간 연속해서 하락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25만 7천622건으로 2017년보다 6천833

건(2.6%) 줄었다.

전년과 비교한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감소했다. 연간 혼인 건수는 1971년(23만9천 457건)과 1972년(24만4천780건)에 이어 2018년에 통계작성 이후 세 번째로 적었다.

당국은 인구, 경제적 요인, 가치관 변화 등이 혼인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대에서 30대의 실업률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결혼 후 발생하는 이른바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인식 감소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비단 현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의 한국을 지탱해줄 인구가 감소한다면 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청년세대들이 혼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출산율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切 磨 箴 規

切 磨 箴 規

▶ 뜻: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의 도리(道理)를 지켜야 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빨라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도로에서 발

생하는 화재는 더욱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합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용'이란 표시가 되어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엔진오일, 각종 오일류 등 소모품과 특히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

고 누유 시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리어터 등 인화성 물질 차량 내부 보관을 금지하며, 주유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정전기 제거 패드에 손을 접촉해서 정전기를 제거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성영 /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roles?). Includes a quote: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If you think more about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won't you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to each other?).